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빌 6번지

전북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신규과제 추가

정부,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시스템 실증 최종 심의·의결
도, 111억 확보 예정... 도내 생산 탄소섬유 적용 가능해져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신규 세부 과제가 11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전북도는 지난 2020년 7월에 최초 지정받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의 4번째 과제로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시스템 실증사업’을 새롭게 추가하게 됐다.

전북도는 부안군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사업기회 후, 수 차례 관련 부처·기관들과 협의하고, 전문가, 중기부 심의를 거쳐 마지막 관문인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사항인 내년부터 111억원 규모의 신규 과제를 추진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국산탄소섬유를 적용한 70MPa의 탄소 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을 제작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해, 이를 환선 고소차 등의 특장 작업 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제로, 제품의 안전성 실증과 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전북도는 탈부착 수소용기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국산 탄소섬유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수소 충전 시간 및 장소의 제약이 적은 탈부착 수소용기를 건설기계, 특장차,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소충전소 구

축이 어려운 지역의 수소 충전 기반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제자유특구 세부 과제에 참여한 도내 기업의 경우 ‘탈부착 수소용기’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실증을 수행하고, 관련 특허를 획득하는 등 시장 선점 효과도 예측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세부 과제 신규 지정은 전북 내 탄소수소-특장차 산업이 한단계 더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탈부착 수소용기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고 잠재성이 큰 사업이어서 우리 전북이 선도적으로 산업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단위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해주는 제도로, 신산업에 규제가 있을 경우 실증 특례를 부여해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향후 규제 완화를 위한 기준 개정까지 연계하는 제도이다.

전북의 기존 3가지 특구과제는 소형어선, 수소이송용기, 소방차용 물탱크에 탄소복합재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선 및 수소이송용기는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고, 소방 분야는 규제를 해소해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탱크 소방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사진 오른쪽)는 11일 국회를 방문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은 도정 주요 현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대광법 등 전북 역점 현안 해결 ‘동분서주’

김관영 지사, 국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찾아 건의
정부세종청사 찾아 기재부·국토부 관계자와 면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도정의 역점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과 세종을 떠나 들머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국회를 방문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직접 찾아가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은 주요 현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에 적용되는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실제 전주권 광역교통 통행량이 광주권과 유사한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조속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더해 지역의 오랜 현안인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은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2월 새만금위 원회에서 금강호 내 용수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2026년 용수공급계획을 결정한 만큼,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시설 총사업비 일괄 승인과 적정 예산이 배정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방문일정 후 바로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기획재정부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새만금 신단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산업부 매칭펀드, 기업자원을 위한 도비 지원, 새만금청과의 협력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해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또한 산업부 공모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며, 향후 전북이 이차전지 산업의 소재 공급 거점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전달했다.

기획재정부 면담에 이어 김 지사는 국토교통부 김복환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을 면담했다.

여기에서 김 지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전북지역 배려를 요청했으며, 지역 특성과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금융·자산운용, 농생명·식품분야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를 전북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재훈 기자

올해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 공모 선정

전북도, 동물용 의약품
가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 과제 3년간 55억 확보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23년도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시범 사업에 ‘동물용 의약품 및 가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 과제가 선정돼 3년간 국비 55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특화 원천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해 추진됐다.

전북도는 동물용 의약품 및 가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 과제를 10년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과거부터 3년간 사업 후 성과평가를 거쳐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 있어, 도는 이에 따라 2026년부터 7년간 총 560억원 지원까지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 및 가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 과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등으로 사료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 기획됐다.

또한, 반려동물 의약품 개발 및 가능성 펫푸드 안전성 평가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연구역량 결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도는 지역 혁신 주체들이 보유한 동물용 의약품의 연구개발(R&D) 기반을 활용해 반려동물 의약품 및 가능성 사료용 원료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주기 지원 모델 발굴로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도내에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연관 사업을 적극 육성하는 상황에서 동물용 의약품(가능성 원료) 개발 생태계 구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농식품부 곤충산업거점단지 공모 결과 이달 하순에

전북도는 곤충 생산·가공 및 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거점단지 공모사업에 진안군이 지난달 31일에 참여했으며, 평가후 결과는 이달 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2025까지 사업비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을 지원해 산업화기반 구축을 통해 곤충산업 혁신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가공·유통체계 구축으로 공공기관센터,

판로개척 및 마케팅을 지원하며, 곤충 생산 기반강화를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사료보급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전북은 곤충산업 연구 인력양성 핵심지역으로 국가 곤충산업 성장 동력 기반을 모두 갖췄다. 특히 진안군은 도내에서 곤충농가가 81호로, 가장 비동아 크고 흉산 한방산업 특화 기반에 곤충산업을 건강기능식품 산업까지로 확장해 곤충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

탄탄한 기초학력부터 시작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